

# 지각 경험의 하위단계와 비개념적 내용

김 태 경

**【요약문】** 지각 경험에 관한 개념주의를 주장하는 맥도웰과 브루어와 같은 철학자들에 따르면 우리의 지각 경험이 전적으로 개념적 내용을 갖게 되는 이유는 바로 지각 경험이 우리가 갖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의 개념적 능력과 조우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들에게 있어 지각 경험이란 의식적 상태이며 우리의 개념적 능력의 접근을 허락하는 이른바 personal level of mental state로 정의된다. 반면, 신경철학자들로 일컬어지는 라프트폴루스와 뮐러<sup>1)</sup>는 경험의 내용이 인지적 침투 (cognitive penetration)를 허락하는 하에서는 개념적 내용을 갖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개념적 내용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들에게 있어 경험이란 때로 우리의 인지적 침투의 접근을 허용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모두를 포함하며, 개념적 내용과 비개념적 내용을 구분하는 기준은 내용을 갖는 경험이 인지적으로 침투되었는지 (cognitively penetrated) 그렇지 않은 지의 여부이다.

이 논문은 신경 철학자들의 입장을 검토하면서, 비개념주의자들이 경험의 비개념적 재현의 내용은 오로지 '비의식적 경험 안에서의 내용만을 의미한다' 라는 주장을 펼친다 할지라도 그러한 내용의 존재 역시 높은 차원의 의식적 개입에 의해서만 이루어 질 수 있음을 논증한다.

**【주제어】** 개념주의, 인식적 침투, 비개념주의, 신경철학, 지각 철학

## 1. 머리말: 경험 내용의 개념적, 비개념적 내용이란 무엇인가?

지각 경험의 내용에 대한 개념주의, 비개념주의의 논증은 기본적으로 지각 경험이란 '지각이 어떤 방식으로 세계를 재현 하는가'를 논하는 재현적 관점 (representational view of experience) 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지각의 내용이 개념적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지각의 재현적 내용이 개념적이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맥도웰 (1994)과 브루어 (1999)로 대표되는 개념주의의 이론은 우리의 지각 경험은 모두 개

1) Raftopoulos and Müller (2006); Raftopoulos (2009)

념적 내용을 갖는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실제로 개념적 내용 혹은 비개념적 내용에 해당되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 정확히 명시하기보다<sup>2)</sup>는 우리의 지각 경험이 갖는 몇 가지 개념적 능력 (conceptual capacities)에 주목한다.

첫째, 지각 그 자체가 단순히 외부 대상을 직접적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성 (receptivity) 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지성의 자발성 (spontaneity) 또한 포함한다. 따라서 지각 경험의 내용을 갖는다는 것은 이른바 "수용성과 자발성의 협업" (co-operation between spontaneity and receptivity)<sup>3)</sup> 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때 구성되는 지각경험의 내용은 지성의 자발성, 예를 들면, 지각된 대상의 분류 또는 범주화, 등에 의해 구성된 내용이므로 개념적 내용이 된다.

둘째, 지각 내용은 지각적 믿음의 근거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개념적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각의 내용이 지각적 믿음의 근거가 되는지 아닌지를 따져 보기 위해서는 믿음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지각의 내용 역시 분명한 내용을 가져야 하며 우리는 이 둘 사이의 인식적 관계를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지각적 내용이 개념적 내용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러한 지각과 믿음의 이러한 관계에 대해 전혀 고려조차 할 수 없게 된다. 즉, 우리의 이러한 능력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지각 내용이 믿음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개념적 내용을 갖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비록 지각이 우리가 소유한 일반적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지각 대상의 속성을 재현(represent)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각적 지시사 (perceptual demonstratives)의 사용<sup>4)</sup> 을 통해 얼마든지 그 재현된 내용들을 개념적으로 포착할 수 있다. 지각자는 지각의 내용을 "그것은 이러저러하다 (that is thus)"<sup>5)</sup>라는 표현으로 지각 내용의 개념성을 문맥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이를 조금 더 폭넓게 해석하자면, 우리의 지각기제를 통하여 들어오는 지각 정보들은 그것이 앞선 두 가지 형태의 개념적 능력들과 -범주화, 믿음과의 인식적 관계에 대한 이해- 조우하지 않더라도 고차원의 인지적 상태에서 지각자가 소유한 개념으로 충분히 포착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의 의식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한 우리가 담는 지각 내용은 모두 개념적으로 포착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주의의 입장의 일반적인 논증은, 위의 세 가지 개념적 능력들 모두 단순한 감각만을 수용하는 단계가 아닌 높은 차원의 의식적, 인지적 능력을 수행할 수 있는 단계에서만 실행 가능하며 이 단계 안의 내용들은 모두 개념적 내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개념주의자들의 정의하는 경험의 범위는 경험의 상위 단계 (personal level of experience) 로 제한되며, 경험의 내용 역시 이 범위 안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드레츠키, 에반스<sup>6)</sup>를 포함한 초기의 많은 비개념주의자들은 이러한 의식적 상태 안에서의 비

---

2)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개념적 내용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개념주의 진영이나 비개념주의 진영 모두 동의하는 개념적 내용이란 이른바 '사고의 내용 (contents of thoughts)'이다. 따라서 사고나 믿음과 같이 인식적, 의식적 능력을 필요로 하는 심적 상태 안에서의 내용은 모두 개념적 내용이다.

3) McDowell, J. (1994), p.9.

4) Ibid (1994), pp. 56-60; Brewer, B. (1999), pp.170-174.

5) Brewer, B. (1999), p. 172. 브루어와 맥도웰의 지각적 지시사를 이용한 개념주의는 에반스 (Evans, G. (1982))의 '세밀성 논증 (The fine-grainedness argument)'에 대한 응답의 방식이다.

6) 드레츠키 (Dretske, F. (1981))와 마틴 (Martin, M. (1992)) 역시 '풍부함 논증 (The richness argument)'를 통해 의식적 경험 안에서의 비개념적 내용의 가능성을 보여주려는 시도를 하였다. 하지만 비개념주의의 대표로 여겨지는 에반스 (Evans (1982))의 '세밀성 논증'과 '풍부함 논증'은 이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이 논문이 주목하는 것은 초기단계의 지각 내용을 어떻게 재현적 내용으로 정의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개념적 내용에 주목했고 이후 동물이나 태아와 같이 개념적으로 세련되지 못하다고 여겨지거나 우리와 같은 개념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와 동일하게 대상의 현상학적 특질들에 대한 경험이 가능하다는 가정을 근거로 비개념적 내용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피콕, 헐리<sup>7)</sup>와 같은 비개념주의자들의 주장이 의미 있게 받아들여져 왔다.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서는 우리의 경험 안에서도 우리의 개념적 능력과 같은 높은 차원의 인지적 능력들이 미치지 않는 지각의 하위 단계들에 주목하는 비개념주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현대의 개념주의 비개념주의 논쟁은 많은 비개념주의자들이 (Toribio, MacPherson, Bermúdez, Raftopolous, Müller 등) 지각의 여러 단계 중 무의식적이고 비인지적인 하위단계의 상태 -subpersonal mental states- 의 내용들을 예로 들며 개념적 내용은 오로지 의식적 경험이나 믿음과 같은 고차원 적인 단계-personal level of experience- 안의 내용으로 국한 시키면서 경험의 비개념적 내용의 존재가능성은 바로 이러한 지각의 하위단계 안에 있음을 보여주려는 시도와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식을 찾는 시도들 간의 대립이라고 볼 수 있다.

### 1) 지각 경험의 범위

지각 경험에 대한 개념주의적 관점과 현대의 비개념주의의 접근방식을 통해 우리는 개념주의자들과 비개념주의자들이 정의하는 경험의 범위가 서로 다를 수 있다. 개념주의자들이 경험의 범위를 오로지 높은 차원의 의식적 단계로 국한시키고 개념적 능력을 지시사의 활용능력으로 까지 확장시켜 지각 경험의 개념성을 확보하려는 논증을 펼치는 반면, 현대의 비개념주의자들은 지각 경험의 범위를 우리의 의식이 미치지 못하는 subpersonal mental state까지 확대시킴으로써 개념적 능력을 지각자의 대상에 관한 정확한 개념소유에 관한 문제 -드레츠키의 풍부함 논증 (the richness argument) 또는 에반스의 세밀성 논증 (the fine-grainedness argument)- 나 지각의 주체가 어떠한 대상에 관한 지각 상태에 들기 위해 그가 소유한 개념을 전개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주장 -피콕, 핵의 상태관점 (state view)-처럼 지각 경험에 주체가 관여할 수 있는 개념 혹은 개념적 능력 등의 조건들을 까다롭게 규정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지각의 단계를 상, 하위로 구분하면서 개념주의자들에 제시한 세 가지 형태의 높은 차원의 개념적 능력이 미치지 않는 단계의 지각적 정보들을 비개념적 내용이라 정의하는 입장을 취한다.

이러한 최근의 비개념주의의 유형을 잘 보여주는 버뮤디즈 (Bermúdez)를 비롯한 신경철학자들 (neuro-philosophers)들과 인지심리학자들 -라프트폴루스 (Raftopoulos), 뮐러 (Müller), 필리슨 (Pylysyn), 마 (Marr) 등- 은 지각 경험의 단계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우리의 인지적 또는 개념적 능력이 미치지 않는 단계, 하위 단계 (subpersonal mental states)나 지각의 초기 단계(the early perceptual system), 안에 존재하는 어떠한 지각정보들이 바로 지각 경험의 비개념적 내용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에 따르면, 개념적 내용과 비개념적 내용에 대한 구분은 바로 이 단계들의 구분에 의해 정의 될 수 있으며, 이를 구분하는 기준은 개념적 능력과 같은 인지적 능력 (Cognitive Penetration)이 침투될 수 있는 가의 여부이다.<sup>8)</sup>

7) 다음을 참조하라: Peacocke, C. (1998); Hurley, S. (1998).

8) 대표적으로 램 (Lamme, V. 2003; 2004) 버뮤디즈 (Bermudez, L. 2005), 라프트폴루스 & 뮐러 (Raftopoulos, A. & Müller, C. 2006), 토리비오 (Toribio, J. 2007) 그리고 라프트폴루스 (Raftopoulos, A. 2009)가 이 입장을 견지한다.

따라서 인지적 침투를 허락하는 심적 상태의 내용은 모두 개념적 내용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비개념적 내용으로 정의될 수 있다.

## 2) 하위 단계에서의 재현적 내용의 존재

이 논문에서 필자는 위와 같은 비개념주의자들의 견해에 동조하여 지각 경험의 비개념적 내용은 subpersonal mental state 안에만 존재한다는 입장을 받아들이거나, 개념주의자들의 편에 서서 오로지 상위수준의 인간적 단계 (personal level) 안에서의 내용만 경험의 내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지는 않는다. 이 논문에서 주목하는 것은 개념적 내용과 비개념적 내용의 기준이 되는 의식 혹은 개념적 능력과 같은 인지적, 의식적 능력이 전혀 침투하지 않은 단계란 어떤 상태를 의미하며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내용을 경험의 비개념적 내용이라 부를 수 있는지 아닌지의 문제이다.

하지만 위의 문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먼저 다루어져야 할 것은 최근의 비개념주의자들의 시도처럼 우리가 경험의 내용에 대한 개념성의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경험의 범위를 subpersonal mental state로 까지 확장한다 하더라도, 개념성의 평가 대상이 되는 지각 경험 **내용**의 존재 여부이다. 다시 말해 지각의 어떠한 상태 안에 있는 이러저러한 내용들이 개념적인지 아닌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상태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의 내용들이란 어떠한 것인지가 정확히 밝혀져야만 한다. 그로부터 우리는 경험 내용의 개념성 또는 비개념성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한 필자의 주된 논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각의 하위 단계, subpersonal mental state와 같은, 안의 어떠한 지각적 정보들이 지각의 주체로 하여금 높은 차원의 인지적 단계 -personal level of experience 같은- 에서 어떠한 경험적 내용을 갖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주체의 의식적 침투를 통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다.

둘째, 지각의 하위 단계에서 어떠한 지각 정보가 실제 존재하고 그것이 의식경험을 직접적으로 유발한다면, 그러한 하위단계로부터 상위 단계로 이끄는 주 원인이 지각적 내용인지 아니면 지각 주체의 개념적 능력인지의 문제가 현대의 비개념주의 논증 안에서는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셋째, 우리는 우리의 지각 체계로 부터 다양한 지각정보들을 수용한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지각 경험의 내용을 갖게 된다는 견해는 당연한 추론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지각 체계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모든 지각적 정보들을 경험의 내용으로 삼지 않는다. 만일 비개념주의자들이 말이 옳다면, 특정한 지각적 정보는 우리의 개념적 능력과 조우하지 않은 채 지각의 하위단계로 일컬어지는 ‘초기시각단계 (early visual system)’<sup>9)</sup>에 존재하게 되는데 이 단계만을 ‘경험’이라 부르는 것과 이 단계의 정보 역시 ‘경험의 내용’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단순한 감각적, 물리적 반응 역시 경험의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든다. 이는 경험의 범위를 필요이상으로 지나치게 확장시킬 수 있는 문제를 낳게 된다.

위 세 가지 논의를 통해 필자는 지각의 하위단계 상태의 정보를 지각 경험의 비개념적 내용이라 정의하는 현대의 비개념주의는 경험 내용의 개념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단계의 어떠한 정보들을 마치 그것이 경험의 내용인 것처럼 (as if attribution) 정의하는 실수를 범했음을 지적할 것이다.

9) 라프트폴루스와 밀러 (2006)의 견해에 따르면, 이 단계는 지각자의 인지적 능력의 침투를 전혀 허락하지 않는 단계이므로 전적으로 비개념적 내용을 갖는다.

다음 장에서는 먼저 인지적 침투로 구분되는 지각 경험의 두 단계는 무엇인지 가볍게 살펴보고 지각의 비개념적 내용이란 어떠한 것인지를 검토한다. 그리고 나서, 필자의 첫 번째 논증을 전개한다.

## 2. 하위단계 (subpersonal states)와 경험의 내용들

라프트폴루스의 견해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논의되어온 지각 내용에 관한 철학적 문제는 ‘세계가 우리의 지각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how the world is presented to us in perception)?’의 문제이다.<sup>10)</sup> 전통적으로 ‘비개념적 내용’이란 말은 “현상적 내용의 한 측면 (말하자면, 심적 상태 안에 있는 내용이지만 지각자가 그러한 상태에 있기 위해 그가 가진 개념을 전개하거나 또는 그러한 현상적 내용에 적절히 대응할 만한 개념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sup>11)</sup> 을 포착하는 데에 쓰여 지는 용도로 사용되어져 왔다.

그에 따르면, 맥도웰 (1994) 이나 브루어 (1999)와 같은 개념주의자들의 주장은, 우리는 세계를 분류화, 범주화된 구조 안에서 지각한다는 것이고, 이와 반대로, 피콕 (1998)과 같은 비개념주의자의 주장은 오직 비개념적 내용만이 지각과 연관된 풍부하고 다양한 현상적 경험에 대한 가장 적절한 설명 방식으로 채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비개념주의자들의 이러한 주장의 핵심은 지각의 내용은 비의식적 상태에서, 비개념적으로, 전언어적 (pre-linguistic)으로도 얼마든지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입장에 영향을 받은 몇몇의 비개념주의자들과 심리학자들은 경험과학의 사례들이나 신경학, 인지심리학과 같은 실험과학의 사례들을 주목하며 우리의 지각 경험 안에 비개념적으로 재현된 내용이 있을 수 있음을 보이려는 시도를 해왔다. 최근의 신경철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만일 지각적 상태나 경험의 내용이 지각 주체의 인식적 능력에 의해 전혀 영향 받지 않고 지각의 무의식적인 체계 (perceptual mechanical system)에 의해 구성되었다면, 그 지각 상태 혹은 경험이 갖는 내용은 비개념적이라고 말한다.<sup>12)</sup>

그러나 이와 반대의 경우, 즉 경험 또는 지각 상태의 내용이 인지적으로 개입 (침투) 가능한 지각 기체에 의해 구성될 수 있다면 그 상태 또는 경험은 개념적 내용을 갖게 된다. 따라서, 인지적 침투 (cognitive penetration) 여부에 따라 구분되어 지는 지각의 두 가지 단계가 경험의 개념적, 비개념적 내용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 1) 개념적 내용 그리고 비개념적 내용

그렇다면, 인지적 침투를 받는, 다시 말해 높은 차원의 의식적 능력이 개입하는 개념적 내용이란 어떠한 것이 있을까? 개념주의자, 비개념주의자 모두 동의하는 개념적 내용이란 믿음, 판단과 같은 사고의 내용을 의미한다. 이 사고 안의 내용은 사고의 주체가 주어진 대상에 대해 ‘그것은 이러저러하다’라는 판단을 하거나 그 대상이 ‘이것은 어떠하다’라고 믿는 등의 이른바 명제적 형태를 띠게 되고 이는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모든 사고의 내용은 개

10) Raftopoulos, A. (2009)

11) “an aspect of the phenomenal content (namely, that to be in a state with phenomenal content does not require either the possession or the exercise of concepts)” (ibid, 2009: 164-165).

12) Raftopoulos, A. and Müller, C. (2006)

념적이다. 그렇다면 지각 경험의 비개념적 내용은 바로 지각 경험이 사고의 형태를 띠고 있지 않을 때 존재하며 이 내용은 명제적 형태를 띠고 있지 않다.<sup>13)</sup> 따라서 비개념적 내용이란 그 내용을 담는 심적 상태가 사고의 형태와는 다르고 그 내용 역시 개념으로 구성되지 않은, 말하자면 높은 차원의 인지적, 개념적 능력 등이 개입될 수 없는 내용을 일컫게 된다. 만일 이러하다면, 어떠한 내용이 비개념적 내용으로 제시될 수 있을까?

## 2) 하위 단계의 비개념적 재현의 내용

현대의 비개념주의에서 대표적으로 제시되는 비개념적 내용의 예는 마 (Marr 1982) 의 지각의 계산이론 (Computational Theory of Vision)에서 보여 지는 2.5D 스케치다. 마에 따르면 지각초기 단계와 같은 의식의 하위단계는 물리적 대상에 관한 지각적 정보를 처리하는데 이 과정은 무의식적으로 처리된다.<sup>14)</sup> 이 과정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재현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대상이 반사하는 빛과 망막에 의해 만들어지는 2차원의 광학상 (optical image)을 재현한다. 이 단계에서 지각 주체의 눈과 뇌는 오로지 대상의 밝기와 명암 정도 만을 재현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2차원도 3차원도 아닌 그 중간의 형태에 해당하는 것을 재현하는 과정이다. 마는 이 단계에 재현된 내용을 2.5D 스케치라 부른다. 2.5D 스케치는 오로지 지각 대상에 대한 망막중심의 편성들(retino-centric coordinates)로써 지각 주체의 시각 (a subject's angle)에서만 재현된 내용이며 빛의 밝기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sup>15)</sup>. 마지막 단계는 앞선 단계의 2.5D 스케치를 이용하여 대상 중심의 각도에서 재현된 3차원의 이미지를 처리한다. 이 단계에서 지각자는 지각의 대상을 그가 가진 사전 지식이나 정보들과 비교하여 인식하게 된다. 지각의 하위 단계로 일컬어지는 sub-personal mental state는 첫째, 둘째 단계로 이해되며 이 단계의 지각정보가 바로 비개념적 내용으로 정의된다.<sup>16)</sup>

하지만 맥도웰 (McDowell 1994)이나 햄린 (Hamlyn 2003)같은 철학자들은 이러한 비개념적 내용과 지각의 하위단계에 대한 입장을 비판한다. 맥도웰의 경우, subpersonal states와 같은 하위단계에 대한 설명은 지각 상태를 설명하는 데에 있어 그저 은유 (metaphor)에 불과하며, 따라서 이 단계의 지각 정보는 경험의 '내용'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햄린 역시 지각 상태에 특정한 처리(transaction) 단계 따위가 존재한다고 가정해도 그것은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일 뿐, 지각적 내용에 관한 처리과정은 아니라고 말한다. 필자는 이들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마의 계산이론과 같은 설명을 제외하고서 지각 상태에 접근하는 온전한 방식이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지각적 대상의 존재가 불분명하거나 없는 환각이나 상상을 제외하고 지각 경험은, 특히 시각은, 전적으로 지각 기제에 의해 작동하고 그것이 생산해 내는 정보가 지각의 내용이라 칭할 수 없이 미미한 정보나 감각정보 따위에 불과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정보들 없이 지각 경험의 내용을 갖는다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각의 하위단계를 단순히 은유 정도로 이해하기보다 개념주의자가

13) 크레인 (Crane 1992) 과 핵 (Heck 2001)은 지각이 근본적으로 사고와 다른 유형이며 때때로 지각의 대상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그 내용면에서 불일치하거나 모순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지각적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하위 단계에 관한 것이 아닌 의식적 경험안의 내용에 관한 것이므로 이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14) 물론, 마 그 자신이 이 단계의 지각적 정보를 지각의 내용이라 칭하지는 않았지만 에반스 (Evans 1982) 나 핵 (Heck 2007)은 이러한 정보가 지각적 내용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15) Marr (1982), pp. 241-245.

16) 참조. Frankish (2009), pp. 90-91; Crane (1992), pp. 140-142.

취해야 할 옳은 방식은 그러한 하위 단계의 지각적 정보가 지각의 내용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비 개념주의자들의 이론이 이 조건에 적절한 설명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따져 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 조건은 개념주의적 관점에서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 지 역시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현대의 신경철학자들이 지각의 하위 단계를 구분하는 방식을 간략히 살펴보고 이들 역시 맥도웰과 햄린의 주장대로 하위단계에 대한 은유에 불과한지 또는 그러한 단계가 포함하는 정보의 존재를 명확히 드러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할 것이다.

### 3) 비개념적 내용과 인지적 침투 (Cognitive Penetration)

라프트폴루스는 지각 경험의 개념적, 비개념적 내용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그보다 앞서 제시된 심리학자와 신경학자들 -마 (Marr 1982)와 필리친 (Pylysyn 1999)- 의 지각 경험이 갖는 두 가지 단계에 관한 입장을 전적으로 수용한다. 이들은 지각 경험들 중 특히 시각 경험에 주목하는데, 이들에 따르면, 시각은 크게 두 가지 단계로 구분될 수 있고, 이는 초기 시각단계 (the early visual stage)와 후기 시각 (late vision)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초기 시각단계라 불리는 이 상태는, 색 경험을 예로 들면, 색이 갖는 물리적 속성들 -표면스펙트럼반사율 (SSRs), 빛의 파장 등의 지각의 가능조건들 (enabling conditions)- 과 같은 것들이 망막으로 들어오는 외부 자극 정보들을 입력하고 처리하는 상태를 일컫는다. 이 접근 방식은 이러한 하위단계의 심적상태에 대한 물리적 분석을 통하여 색 경험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신경학적 사실에 기반한 설명이라 볼 수 있다. 둘째, 후기 시각 (late vision)이라 불리는 이 상태는 시각의 초기단계로부터 들어온 정보들의 결과물들을 가지고 지각된 대상과 그것이 갖는 현상적 특징들을 높은 차원의 인지 능력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수행하는 상태이다.

초기 시각단계의 경우, 시각 기제에 의해 수용된 정보들은 믿음의 내용과 같은 높은 인식적 차원의 내용과는 다르게 우리의 인지 능력으로 접근 불가능하다. 이는 우리의 지각 기제가 갖는 **신경학적 사실**일 뿐, 지각의 주체는 이 정보들에 의식적으로 접근할 수도, 분명히 표현할 수도 없다는 것이 라프트폴루스의 주장이다.

반면, 후기 시각의 경우, 우리가 지각하는 대상들의 집합과 우리가 그들에게 부여하는 현상적 특질은 바로 우리의 개념적 도식 (conceptual schema)에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단계에서 지각된 대상과 관련된 의미론적인 정보 (semantic information)와 기억 과정 등 (memory process)에 의존하여 의식적으로 이 내용들에 접근할 수 있다.

요약하면, 위의 학자들은 심적상태의 하위단계 (subpersonal states) 또는 초기시각단계를 시신경 뉴런 같은 감지 가능한 정보 (sensible information)들을 처리하는 단계로 설명하면서 우리는 이 단계들의 정보에 물리적 분석을 제외한 의식적 접근이 불가능 하다고 단언한다.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지각적 정보는 초기시각의 상태 그리고 후기시각의 상태에서 모두 공유될 수 있는 것이라 믿는다. 다시 말해, 대상의 현상학적 특질을 포착하는 우리의 초기시각단계는 그 포착한 특질 -초기시각의 내용-은 지각 주체의 후기 시각 내용의 구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필자가 이 부분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연관성에도 불구하고, 이들 철학자들은 앞선 단계에 존재하는 내용들을 비개념적, 그리고 뒤의 단계에 있는 내용들을 개념적 내용이라 정의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이러한 구분과 주장이 재미있는 점은 앞선 단계의 내용들이 어떤 방식으로 뒤의 단계의 내용들과 그 현상적 측면에서 어떤 방식으로 공유

될 수 있는지 분명한 설명은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라프트폴루스 그 자신 역시 아주 간략하게 개념적, 비개념적 내용의 구분에 관해서만 다음과 같이 설명할 뿐이다:

이 책에서 나는 비개념적 내용을 초기시각단계 안에서 구성된 내용으로 정의한다. 그동안 비개념적인 재현적 내용(non-conceptual representational content)이란 시각 상태의 내용으로서 정의되어 왔다. 초기시각단계는 주어진 환경으로부터 시각적 정보들을 온전히 상향식으로 뽑아낸다, 따라서 이 과정에는 하향식의 인식적 접근은 불가능하게 된다; 즉 초기시각단계는 인식적으로 침투불가능한 단계이다. 이런 단계의 내용들은 모두 필연적으로 비개념적 내용들이다. [...] 이러한 관점에서, 개념적, 비개념적 내용이란 시각의 두 가지 다른 단계의 결과물이다; 개념적 내용이란 후기 시각이나 관찰과 같은 의식적 단계의 결과물들인 반면, 비개념적 내용은 초기 시각단계나 순수한 시각 같은 단계의 결과물이다.<sup>17)</sup>

지각이 사고의 형태와는 다르고 그 내용을 구성하는 데에 있어 지각자가 소유한 ‘개념’ 혹은 ‘개념적 능력’에 영향을 받지 않아 지각의 과정 중 일부에서는 비개념적 내용을 갖게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전적으로 수용하면 라프트폴루스의 설명은 받아들여질 만 하다. 하지만 문제는 지각 경험의 내용을 오로지 초기단계에만 귀속시켜버리면 우리는 그 내용에 대한 지각의 가능조건들 (enabling condition)과 같은 물리적 접근방식에만 의존하여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지각 경험의 내용이 재현적인지 아닌지의 문제를 다시 고려해야만 한다. 신경철학자들 역시 앞선 전통적 관점의 비개념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지각의 재현적 내용에 대한 비개념적 내용의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지 반사율, 망막에 맺히는 상 또는 뇌피질의 활성화 정도를 지각의 재현적 내용이라 정의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들이 말하는 지각이란 단순한 감각적, 물리적 반응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심적 재현 (mental representation)이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따라서 이러한 ‘심적 재현이 어떻게 가능한가?’ 라는 질문과 ‘심적 재현 내용이 개념적이냐 비개념적이냐’의 문제는 서로 분리되어 논의되어야 한다.

하지만 필자는 이들의 지각에 대한 접근방식이 전혀 의미 없다고 보지는 않는다. 비록 라프트폴루스를 비롯한 많은 신경철학자들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초기단계와 후기단계의 내용들이 서로 지각 대상의 어떠한 특징을 공유할 수 있는 지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는 못하였지만, 이들의 논증이 의미 있는 점은 바로 지각 경험의 작동방식에 관한 두 가지 단계와 같은 구분을 통해, 개념적 내용과 비개념적 내용에 대한 비교적 명확한 구분 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심적 재현을 구성하는 데에 있어 전적으로 지각의 가능조건에 의존되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지각자의 인지적 능력에 의해 전혀 개입 받지 않는다면 이는 전적으로 비개념적 내용이라는 것, 그리고 개념적 내용이란 개념주의자들이 제시한 크게 세 가지 종류의 개념적 능력들이 침투 (conceptually penetrated) 되어 구성된 내용들이며 우리의 사고와 같은 고차원적인 심적 상태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적, 비개념적 내용을 구분 짓는 인식적 침투가 이 논문의 1장에서 제시된 개념주의자들의 세 가지 유형의 개념적 능력과 그 능력들이 지각 내용의 구성에 있어 어디까지 개입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계선을 긋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이 기준이 받아들여질 만 하다면, 우리는 이 기준으로 나뉘어진 지각의 단계를 바탕으로 개념적, 비개념적 내용을 구분하면 그만이다. 그렇다면, 왜 개념적 내용, 비개념적 내용이 이러한 구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어야 하는가?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드러낼 것이다.

17) Raftopoulos, A. (2009), p. 146

### 3. 재현적 내용을 갖는 지각 경험의 범위

개념적 내용을 고차원적인 인지 상태의 모든 내용이라 정의하고 비개념적 내용을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면 우리는 쉽게 개념적, 비개념적 내용의 구분과 개념적 지각 경험 비개념적 지각 경험을 구분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각각의 단계에 존재하는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를 파악해보면 된다. 하지만, 이는 그리 간단해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첫째로, 뇌신경철학자들이 일컫는 '하위단계의 심적상태 (subpersonal mental states)'가, 앞선 단락에서 지적하였듯이, 정확히 어떤 상태를 지칭하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감각 상태(sensual states)와 지각 상태 (perceptual states)를 구분한다.<sup>18)</sup> 하지만 라프토폴루스와 같은 비개념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초기단계를 명확히 '지각 상태'로 일컫는지 아니면 단순히 감각에 반응하는 정도의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주고 있지 않다. 이들이 정의하는 지각상태가 단순한 감각적 반응과 다른 것이라면, 따라서 명확한 재현적 정보가 우리에게 드러날 수 있는 상태라면 이에 대한 설명은 지각의 가능조건에 기대 설명이 아닌 재현적 정보가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지각적 정보가 어떠한 방식을 통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만 논의할 뿐 그 정보가 우리에게 어떻게 재현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의식적으로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단지 그러한 상태에서는 '2.5D 스케치'와 같은 것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뿐이다. 이는 맥도웰이 지적하였듯이 '비개념적 내용'의 존재에 대해 이야기 하는 철학자들은 '마치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as-if attribution)' 가정 할 뿐 정작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자기모순에 빠지는 문제를 낳을 수 있다.

둘째는, 이러한 가정은 지각 경험에 관한 범위를 자칫 단순한 물리적, 신경생리학적 반응 상태로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예반스의 세밀성 논증이나 드레츠키의 풍부함 논증처럼 우리의 의식 경험 안에서도 우리가 개념적으로 포착할 수 없는 내용들은 개념주의자들이 보여준 지각적 지시사의 활용 능력에 의해 개념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반면, 위의 뇌신경철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각적 정보를 그저 하위 단계에만 머물러 있는 경험의 내용으로 정의하거나 어떠한 경우에는 개념적인 내용으로 전환되지 못한 채 비개념적인 상태로 인지적으로 침투된 지각 상태 안에 존재하는 알 수 없는 어떠한 내용이라고 정의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낳게 된다.<sup>19)</sup>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지각적 내용들에 대해 지각의 인지적 침투 단계를

---

18) 소박한 상관주의 (austere relationalism)나 소박한 실재론 (naïve realism)을 옹호하는 캠벨 (Campbell, J. (2002)), 트래비스 (Travis, C. (2004)), 피쉬 (Fish, W. (2009)) 같은 철학자들은 경험의 재현적 관점 (the representational view of experience)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참조: 쉘렌버그 (Schellenberg, S. (2011))). 이들에 따르면, 지각의 내용은 재현적이기 보다는 지각자의 지각 상태와 대상 혹은 대상과 지각자가 속한 사건의 마음-독립적인 속성 (mind-independent properties) 사이에 대한 관계의 유형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논문은 이들의 관점을 다루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이들의 관점에는 재현적 경험에 관한 논증들과 논쟁조차 시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쉘렌버그에 따르면, 대부분의 상관주의자나 실재론자들의 지각 내용에 관한 이론은 오로지 “세계와 우리의 지각적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설명적 역할도 찾아 볼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 (Schellenberg, S. (2011), p. 714). 이는 이 논문이 견지하는 하는 경험의 범위를 넘어선다.

19) 블록 (Block, N. 1999)은 이러한 종류의 경험 내용에 관해 논증하는데, 그에 따르면, 의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현상적 의식 (phenomenal consciousness (P-consciousness)) 과 접근의식 (access consciousness (A-consciousness))이다. 현상적 의식은 (P-consciousness) 우리가 통상적으

기준으로 개념, 비개념적 내용을 논의하는 것은 지각 경험의 내용을 조금 더 명확히 정의해야 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개념주의의 주된 입장, 즉 지각 경험의 내용을 온전히 우리의 개념적 능력이 개입될 수 있는 단계 -personal level of experience-로 규정하는 것이 더 온건한 접근방식으로 보인다. 허나 분명한 것은, 지각 경험의 내용을 특정한 범위 안에 가두어 놓는다 하더라도 지각의 발생적 측면 -즉, 지각의 순수한 작동 기제와 세계의 관계- 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 지각 경험의 개념성, 비개념성을 고려할 때 우리는 환각, 착각 혹은 꿈과 같은 사례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분명한 지각적 대상 (세계)이 존재하며 우리의 지각 -기계적, 인지적 기제 모두 포함하여- 이 그것을 심적 상태 안에 어떠한 형태로 반영하느냐의 문제가 바로 앞서 다루었던 철학자들의 주된 연구과제이기 때문이다. 결국 라프토폴루스는 개념주의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 -즉, 세 가지 개념적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의식 경험 안에서의 지각 내용들의 존재-가 무엇인지 드러내려고 시도한 듯 보인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이러한 접근방식은 지각 경험의 범위를 필요이상으로 지나치게 확장한 것으로 여겨진다.

앞선 절에서 살펴보았던 비개념주의자들은 subpersonal mental states와 같은 하위 단계의 지각적 기제나 감각 상태 (sensuous states) 또는 초기시각단계 (the early visual stage)들이 담고 있는 어떠한 지각적 정보가 우리가 의식적으로든 인지적으로든 접근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그러한 단계들을 우리가 지각 경험이라 부르는 상태의 한 유형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다. 마찬가지로 그러한 단계들이 담고 있는 정보들 역시 지각 내용에 해당된다는 주장 역시 함축되어 있다. 하지만 이들이 주장하는 지각적 정보란 어떤 면에서 감각 반응 그 자체이거나 우리의 신경세포들이 물리적으로 주변상황에 반응하는 것에 크게 지나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이들의 접근방식을 이용하면 이러한 단계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재현적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마지막으로 2.5D 스케치의 경우 앞선 단계와 그 뒤의 단계로 특정한 지각 정보가 흘러 들어갈 때, 첫 번째 단계의 내용이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를 거치면서 지각이 재현한 어떠한 내용도 소실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첫 단계에서의 빛에 관한 재현의 내용은 두 번째 단계를 거치면서 전혀 소실되지 않은 채 새로운 재현적 속성이 추가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추가되고 다듬어진 정보들이 후기 시각과 같은 높은 차원에 이르게 됨으로써 지각 주제로부터 명확히 확인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초기 시각과 후기 시각에는 최소한 하나 이상의 공통된 속성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위 단계의 재현적 내용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단계는 오로지 상위 단계 뿐이며 상위단계에 이르지 않은 채 하위 단계에만 남아 있

---

로 경험이라 부르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의 지각상태의 현상적인 의식적 측면으로서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the phenomenally conscious aspect of a state is what it is like to be in that state)” (Block, N. (1995), p. 227). 현상적 의식은 우리의 감각경험의 결과물으로써,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반대로, 접근 의식은 “추론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된 그리고 이성적인 말과 행위를 인도하는 유용성의 일종이다 (“availability for use in reasoning and rationally guiding speech and action” (ibid)). 현상적 의식과는 다르게 접근의식은 “추론의 전제로 사용될 준비가 되어 있는 “poised for use as a premise in reasoning”, 합리적 행위를 조절할 준비가 된 poised for rational control of action, 그리고 언어(발화행위)의 합리적 통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된 poised for rational control of speech“ 상태 안에 있다 (ibid, p. 231, *필자의 강조*). 오로지 재현적 내용들만 추론에서 확인될 수 있으므로, 접근의식의 내용들은 온전히 개념적이다. 접근의식의 예들로는, 사고, 믿음, 그리고 욕구와 같은 것들이다.

는 어떠한 지각정보를 지각의 재현적 내용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앞서 얘기했던 첫 번째 문제와 동일하게 마치 그러한 것이 있는 것처럼 가정하는 것뿐이다. 이는 비개념적 내용에 대한 올바른 접근 방식은 아니라고 보여 진다. 다음 절에서는 이 마지막 논의를 확장시켜 하위단계의 어떠한 지각 정보 역시 상위 단계의 개념적 접근에 의해서만 그 존재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음을 논의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personal level같은 상위 단계에서 역시 개념적, 비개념적 내용을 동시에 갖게 될 수 있음 또한 보일 것이다.

#### 4. 인지적 침투의 범위

대부분의 뇌신경 철학자들이 지각의 초기단계, subpersonal states와 같은,<sup>20)</sup>는 인지적으로 침투 불가능한 시각기제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는 반면, 개념주의 비개념주의 양측의 입장을 적절히 대변하려는 맥퍼슨 (MacPherson)<sup>21)</sup>은 믿음과 욕구 (지각경험을 구성하는 데에 “추가되거나 기여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지각적 이미지를 만들어 낼 수 있는)<sup>22)</sup> 같은 명제적 태도를 포함하는 높은 단계의 인지적 상태 (higher-level cognitive states)가 있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있다. 따라서 맥퍼슨의 이러한 관점에서는 인식적으로 침투된 시각의 초기단계라 불릴만한 지각의 하위 단계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역시 욕구와 믿음 같은 고차원적인 의식 활동이 개입된 경험이므로 personal level에 해당된다. 하지만 그녀는 이러한 침투가 오로지 고차원적인 단계에만 관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단계에 개념적, 비개념적 내용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음을 보인다. 이는 앞서 얘기 했듯이 지각 경험의 발생이 근본적으로 그것의 가능조건에 의존되어 나타나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그녀는 델크 (Delk) 와 필렌바움 (Fillenbaum) 의 심리학 실험을 예로 들며 이를 설명 한다:

하나의 오렌지 색 종이로부터 서로 다른 모양들을 잘라낸다. 이 모양들 중 어떤 것들은 사람의 마음 (e.g. 하트모양), 입술과 같이 빨간 색으로 특징지어지는 모양들이다. 나머지 모양들은 빨간 색으로 특징지어지는 것들이 아니다. 이 모양들은 원래 종이의 오렌지 색상으로부터 노란색에서 빨간 색으로 보정되는 배경 앞에 놓여진다. 실험의 참가자들은 배경 앞에 놓인 모양의 색과 배경이 일치될 때 까지 배경색의 변경을 요구하라고 지시 받는다. 참가자들은 빨간색으로 특징지어지는 모양들이 그들 앞에 놓였을 때, 그와 다른 모양의 대상들이 놓여 있을 때의 배경색을 골랐을 때 보다, 더 붉은 배경색을 골랐다. 다른 모양의 대상들과 일치된 배경색들은 더 오렌지색에 가까웠다. (더욱 오렌지색에 가까웠다라 함은 객관적으로 더 정확히 일치했음을 의미한다.)<sup>23)</sup>

20) 라프토폴루스는 이 단계를 'early visual system'이라 말한다 (참조: Raftopoulos,A. (2009)).

21) 맥퍼슨은 전적으로 개념주의를 옹호하지는 않는다. 다만 그녀는 우리의 의식 경험안에 개념적 비개념적 내용을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만을 보여준다. 그녀 역시 비개념적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특정한 유형의 인지적 침투상태에서는 지각자의 개념소유나 개념적 능력과는 무관한 지각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논증한다. (Cf. Macpherson, F. forthcoming)

22) Macpherson, F. (forthcoming), p. 1.

23) Ibid, p. 23

이 실험의 예를 통해 우리는 실험의 참가자들이 하트모양이나 입술과 같은 대상들이 갖는 특징적인 색에 대해 갖는 믿음이 그들이 어떤 대상들을 더 빨갭게 지각하도록 침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특정한 모양에 관한 어떠한 믿음이 그 실험의 참가자들이 갖는 대상의 표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고 여길 수 있다. 맥퍼슨의 요지는 그 참가자들이 오렌지 색 하트 모양을 보았지만, 그들이 갖는 하트 모양에 대한 믿음 ‘하트모양은 붉다’라는 명제적 태도가 그들의 지각 상태의 내용에 영향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붉은 하트모양’이라는 지각 경험의 내용을 갖게끔 유도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는 색을 물리적으로 정의할 때 이용되는 표면스펙트럼 반사율 (Surface Spectral Reflectance)과<sup>24)</sup> 같은 색의 물리적 속성을 경험의 내용으로 삼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우리가 의식적으로 지각한 바로 그것을 내용으로 삼는다. 따라서 색지각의 초기단계 혹은 발생단계에서조차도 얼마든지 인지적 침투가 가능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지각적 정보는 여전히 오렌지색으로 하위 단계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개념적, 비개념적 내용을 동시에 가질 수 있게 된다.

맥도웰과 브루어로 대표되는 개념주의의 입장으로 접근한다면, 맥퍼슨은 결국 의식경험 또는 personal level 단계 -인지적으로 침투 가능한- 예서의 내용만을 이야기 하고 있으므로 이 단계의 내용은 개념적 내용으로 분류 될 수 있지만 subpersonal mental states나 지각의 초기단계에서조차도 이러한 종류의 인지적 침투가 가능할 수 있다면 어느 측면에서든 우리는 모두 개념적 내용을 갖는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닌가하고 여겨질 수 있다.

우리가 맥퍼슨의 논증을 통해 첫째로 고려해야 할 것은 바로, 지각 내용의 개념성을 평가하는 데에 가장 먼저 우선시해야 할 것은 그 지각 내용의 존재 여부라는 것이다. 비록 지각자가 소유한 개념의 전개나 의존 없이 순수한 지각(mere perception)이 일어날 수 있고 지각의 비의식적 기제에 의해 그 내용이 구성되었다 할지라도 그 내용에 대한 접근은 반드시 인지적 침투를 허용한다. 말하자면, 인지적 접근 -특히 개념주의 이론이 제시하는 세 번째 종류의 개념적 능력, 예컨대 지시사와 같은 지각자가 소유한 개념을 활용하는 능력,- 같은 개념적 능력을 필요로 하는 방식에 의존되지 않고는 초기 단계의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런 과정에 의해 파악된 내용은 이미 개념적 내용이다. 다시 말하면, 초기 단계의 내용도 온건하게 수행된 지각의 과정들을 거치면 이미 주체에 의한 개념적 포착가능성을 지닌다는 점이다. 이 말은, 비개념적으로 지각이 발생하는 원리와, 그러한 원리에 의해 구성된 지각 내용은, 그것의 발생원리와는 다르게, 이른바 개념적 능력을 필요로 하는 인지적 접근의 가능성을 늘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맥퍼슨의 예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비개념적 내용의 증명 방식이라는 것은 결국 맥도웰이 주장하는 지각의 수용성과 자발성의 협업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점이다. 맥도웰의 입장은 지각 경험을 설명함에 있어, 지각적 수용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의 개념적 능력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각적 수용이 일어날 때, 바로 그때에 우리의 지성의 자발성이 동시에 발휘된다는 주장이다.<sup>25)</sup> 이는 의도된 행위가 아닌 우리의 지각이 갖는 고유한 특징이며

24) 색에 대한 정의를 물리적 속성에서 찾는 색 물리주의의 (Colour Physicalism) 이론에 따르면, 색은 SSRs이라는 표면스펙트럼 반사율로 정의 된다. 그리고 우리의 색경험의 내용 또한 물리적 속성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색 경험에 있어 비개념적 내용을 주장하는 몇몇 철학자들이 색물리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참조: Byrne, A. and Hilbert, D. 1997; Tye, M. 1995, 2000 & 2004).

25) 맥도웰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the content of experience is not obtained by sensible intuitions only as operations of receptivity, but is also structured by conceptual

우리의 지각이 발생할 때 자동적으로 행해지는 과정이다. 물론, 의식경험 안에서 아직 개념적으로 포착되지 않은 내용을 비개념적 내용으로 정의한다면, 위의 문제는 해결될 듯 보이지만 이 역시 개념주의자들이 제기한 세 번째 유형의 개념적 능력과 언제든 마주할 가능성을 지닌 지각적 내용이므로 개념적 내용에 해당된다고 봐야 한다. 이 마지막 가능성을 배제하게 되면 우리는 하위단계에 어떠한 재현적 내용이 담겨질 수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게 된다.

#### 4. 맺음말

지금까지 현대의 비개념주의 논쟁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뇌신경철학자들이 제기한 경험의 두 가지 단계에 대한 구분과 이에 대한 기준으로서 제시된 인지적 침투 (cognitive penetration), 그리고 이를 통해 개념적, 비개념적 내용이란 어떠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하지만 뇌신경철학자들의 경험에 대한 구분은 필요이상으로 경험의 범위를 확대시켜, 경험의 내용을 단순한 물리적 자극에 대한 신경세포의 반응 정도로 여길 수 있는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음을 보았고, 지각의 하위단계 안의 어떠한 종류의 지각적 정보를 지각의 내용이라 칭한다 해도 개념주의가 제시한 첫 번째 형태와 세 번째 형태의 개념적 능력에 의해 무력화 될 수 있음을 보았다.

그렇다면, 비개념주의자들의 과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어떠한 개념적 능력의 개입 가능성이나 인지적 침투 없는 의식 경험 하에서의 비개념적인 재현적 내용의 존재를 가능조건에 의존하는 물리적 방식을 제외하고 증명하는 일일 것이다.

---

capacities as operations of spontaneity”. McDowell (1994), p. 4 & footnote 3.

## 참고문헌

- Bermúdez, L. (1995). "Nonconceptual content: From Perceptual Experience to Subpersonal Computational States". *Mind and Language*, 10 (4), Reprinted in Y. Gunther (Ed.), *Essays on Nonconceptual content* (2003: 183-216). London: MIT Press.
- Block, N. (1995). "On a Confusion about the Function of Consciousness". *Behavioural and Brain Studies*, 18, 227-247.
- Bradley, P. & Tye, M. (2001). "Of Colors, Kestrels, Caterpillars, and Leaves". *The Journal of Philosophy*, 98 (9) (September 2001), 469-487.
- Brewer, B. (1999). *Perception and Reason*. Oxford University Press.
- (2005). "Perceptual Experience Has Conceptual Content". In M. Steup & E. Sosa (Eds.), *Contemporary Debates in Epistemology* (217-230), Wiley-Blackwell: Oxford.
- Byrne, A. and Hilbert, D. (1997). "Colors and Reflectances". In A. Byrne and D. Hilbert (Eds.), *Readings on Colour: The Philosophy of Color* (263-288), Vol. 1, A Bradford Book, The MIT Press, London.
- (2003). "Color Realism and Color Science". *Behavioural and Brain Sciences*, 26, 3-64.
- Campbell, J. (2002). *Reference and Consciousnes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2005). "Information processing, Phenomenal consciousness, and Molyneux's question". In J. L. Bermúdez (Ed.), *Thought, Reference, and Experience* (195-219), Oxford: Clarendon Press.
- Drayson, Z. (2011). "The Review of Cognition and Perception: How do Psychology and Neuroscience Inform Philosophy?" *Journal of Consciousness Studies*, 18 (7-8), 242-258.
- Dretske, F. (1981). *Knowledge and the Flow of Information*. Cambridge: MIT Press.
- (1993). "Conscious Experience". *Mind*, 102 (406), 263-283.
- Evans, G. (1982). *The Varieties of Referen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Fish, W. (2009). *Perception, Hallucination, and Illus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 Frankish, K. (2009). "Systems and levels: Dual-system theories and the personal-subpersonal distinction". In J. Evans and K. Frankish (eds.), *In Two Minds: Dual Processes and Beyond* (2009: 89-107), Oxford University Press.
- Heck, C. (2000). "Nonconceptual Content and the "Space of Reasons"". *The Philosophical Review*, 109 (4), 483-523.
- Hurley, S. (1998). *Consciousness in Ac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Lamme, V. (2003). "Why Visual Attention and Awareness are different".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7 (1), 12-18.

(2004). "Separate Neural Definitions of Visual Consciousness and Visual Attention: A Case for Phenomenal Awareness". *Neural Networks*, 17 (5), 861-872.

Marr, D. (1982). *Vision*. New York: W.H. Freeman.

Martin, M.G.F. (1992). "Perception, Concepts and Memory". Reprinted In Y. Gunther (Ed.), *Essays in Non-Conceptual Content* (237-250). Cambridge: MIT Press.

McDowell, J. (1994). *Mind and Worl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s, A. (2006). *Content in Thought and Perception*. (Doctoral Dissertation), Oxford University, Retrieved from <http://philpapers.org/archive/NESCIT-2.pdf>.

Peacocke, C. (1983). *Sense and Content: Experience, Thought and their Relat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Nonconceptual Content Defended".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58 (2), 381-388.

Pylyshyn, Z. (1999). "Is Vision Continuous with Cognition? The Case for Cognitive Impenetrability of Visual Perception". *Behavioural and Brain Sciences*, 22 (3), 341-365.

Raftopoulos, A. & Müller, C. (2006). "The Phenomenal Content of Experience". *Mind and Language*, 21(2), (April), 187-219.

Raftopoulos, A. (2009). *Cognition and Perception: How Do Psychology and Neuroscience Inform Philosophy?*. Cambridge, MA: MIT Press.

Schelleberg, S. (2011), "Perceptual Content Defended", *Noûs*, 45 (4), Dec. 2011, pp. 714-50.

Toribio, J. (2007). "Nonconceptual Content". *Philosophy Compass* 2/3 (2007), 445-460.

(2008). "State Versus Content: The Unfair Trial of Perceptual Nonconceptualism". *Erkenn*, 69 (3), 351-361.

Travis, C. (2004). "Silence of the Senses." *Mind*, 113, 57-94.

Tye, M. (1995). "The Burning House," in T. Metzinger (Ed.), *Conscious Experience* (81-90). Kansas, Lawrence: Allen Press.

(2000). *Consciousness, Color and Content*.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 Abstract

### Subpersonal States and Non-conceptual Content

Kim, Tae-Kyung

Philosophers, who advocate conceptualism on perceptual experience, particularly John McDowell and Bill Brewer, have argued that perceptual experience has conceptual contents because those contents could be engaged with the three major types of conceptual capacities that we have. As such, the notion of experience that the conceptualists hold is conscious state, which allows our conscious access involving the conceptual capacities. Whereas, philosophers called neuro-philosophers, particularly Raftopoulos and Müller and Raftopoulos recently argue that the contents of experience can be non-conceptual only if they are not cognitively penetrated, otherwise it is conceptual. Hence, the range of experience defined by the neuro-philosophers refers to both conscious and non-conscious state of mind. As such the criterion of having either conceptual contents or non-conceptual contents is dependent on whether a perceptual state is cognitively penetrated.

This paper reveals the initial problem of the non-conceptualism that there is no way to prove the existence of non-conceptual content in subpersonal mental states without considering conceptual cognitive penetration. Non-conceptualists attempt to find that there could be a particular type of perceptual content, which cannot be engaged with a perceiver's conceptual capacity when we consider only subpersonal level of experience in order to prove the existence of non-conceptual content in experience. However, I argue that without being conceptually engaged with, no perceptual content can be found in those lower level of experience.

**【Key words】** Conceptualism, Cognitive Penetration, Non-conceptualism, Neurophilosophy, Philosophy of Perception